

# 농기계임대 전국 2위의 '영광'

### 3년 연속 상사업비 총 7억 원 확보

### 확보된 사업비로 신형 농기계 교체



영광군은 지난 4일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군' 선정과 '전국 2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권역별 평가 컨설팅 영역사의 분석을 토대로 전국 142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46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보유대수, 운영인

력 및 예산확보, 정책수행과 임대료 책정 등의 7개 항목 17개 평가지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영광군은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대비하여 사전 컨설팅, 타 시·군 분석 및 벤치마킹, 업무 협의회를 실시했으며 '평가대비팀'을 구성하고 평가지표 집중 분석과 평가표 작성, 평가자료 수집·제출에 만전을 기한 노력의 결

과이다.

이번 결과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처음 실시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상사업비로 2017년 2억 원, 2018년 2억 원, 2019년 3억 원으로 총 7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최우수군 선정으로 받은 상사업비 전액을 노후된 임대농기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투자했다.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손꼽는 우수 농정정책이며 농업 기술보급 지도 사업에 비중을 차지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3년 연속 최우수군이라는 성적과 2019년도 전국 2위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같은 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수여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우수 기관포상을 별도로 수여받아 '최우수군' 선정과 '평가우수 기관상' 수상의 2관왕을 거두는 성과를 과시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곡성군 2019 정부혁신 경진대회, 창의혁신 열기로 후끈

### 사회적 가치·참여협력·관행혁신 등 제시

###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여러가지 과제 나와

지난 5일 곡성군청 대동마루가 2019 정부혁신 부서 경진대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경진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관행혁신'에 대응하는 19개 혁신과제가 발표됐다. 대회에 참여한 각 부서 참가자들은 우수 과제를 선보이고자 밤새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였다. 대회는 새내기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실제 운영사례를 토대로 발굴해 낸 혁신 방안, 창의 아이디어 등 수준 높은 발표의 장으로 펼쳐졌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초청된 외부 전문 심사단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혁신전략 적합성, 효과성,

준비도 등 5개 심사기준과 청중 평가점수까지 더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민관학 거버넌스!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 우수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의 우수과제로 '마을회관 중심 IoT기반 생활편의 서비스 구축', '민박의 새로운 바람, 곡성스테이의 이유 있는 인기비결', '공감정책 발굴, 우리 모두 함께해요!'가 선정됐다. 마지막 창의 아이디어 등 수준 높은 발표의 장으로 펼쳐졌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민관학 거버넌스!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 우수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의 우수과제로 '마을회관 중심 IoT기반 생활편의 서비스 구축', '민박의 새로운 바람, 곡성스테이의 이유 있는 인기비결', '공감정책 발굴, 우리 모두 함께해요!'가 선정됐다. 마지막 창의 아이디어 등 수준 높은 발표의 장으로 펼쳐졌다.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민관학 거버넌스!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 우수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의 우수과제로 '마을회관 중심 IoT기반 생활편의 서비스 구축', '민박의 새로운 바람, 곡성스테이의 이유 있는 인기비결', '공감정책 발굴, 우리 모두 함께해요!'가 선정됐다. 마지막 창의 아이디어 등 수준 높은 발표의 장으로 펼쳐졌다.



발표 준비에 고생한 직원들을 응원했다. 유 군수는 혁신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면서 군정 혁신을 통해 군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들어갈 혁신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내년에는 혁신과제를 성과로 이어나가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화순 능주면, 이불·전기장판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화순군은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타가 6일 저소득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층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능주면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와 복지공동대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살피며 발굴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2가구에 겨

울이불과 전기장판을 전달하게 됐다.

정은채 능주면장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보성 작은영화관, 개관 8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3만 돌파



보성군, 녹차골 보성 작은영화관이 오픈 8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3만 명을 돌파했다.

보성 작은영화관은 2만 96석의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최신작을 상영하는 등 개봉관이라는 이점 덕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 대형 영화관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최신 영상 시스

템과 대형 스크린을 갖춰 관람의 질을 올리고, 저렴한 관람료와 가까운 위치도 보성 작은영화관이 성장에 한몫했다.

보성 작은영화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방과 후 건전한 놀이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인들에게는 저녁 시간 가볍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문화적 갈

증을 해소하고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영화 관람을 위해서는 순천이나 광주 지역까지 나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보성군 관계자는 "작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보성 문화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쇼핑, 식문화, 관광 등을 보강하고,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예매 및 상영시간표는 보성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boseong.scinema.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작은영화관' 앱을 설치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 작은영화관(☎061-852-7050)에서 문의하면 된다.

보성=안기일 기자

# '클래식 향연'...여수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15일 오후 5시 예술마루 대극장...관람료 무료

### '아드리엘 김' 지휘, '지역 예술영재 100명' 공연

여수시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2019 여수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영재교육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휘자 '아드리엘 김'과 지역 예술영재 100명이 무대를 꾸민다. 이날 공연자들은 '열정! 시그니

처, 클래식을 담다'라는 주제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프르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마르퀴즈 단존 No.2 등을 연주한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안호영(여수고 3) 군과 조민주(여양고 2) 양은 윌트 비올라 협주곡과 멘델

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여수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관람료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여수교육지원청(☎690-552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아이들이 그동안 갖고있는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연주회에 많은 시민의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영재교육원은 지역 음악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예술마루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